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5. 국어사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23004-0069]

0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형태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명사가 존재하였다.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는 경우에는 명사의 ‘ㅎ’이 사용되었고,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는 경우에는 명사의 ‘ㅎ’과 조사의 ‘ㄱ, ㄷ’이 축약된 형태가 나타났다. 한편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사’ 앞에 쓰이면 ‘ㅎ’이 탈락되었다. 현대 국어에서의 ‘길’은 중세 국어에서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깊’이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의 ‘ㅎ’은 연음된 형태로, ‘ㅎ’과 조사의 ‘ㄱ, ㄷ’이 축약될 때에는 축약된 형태로 표기되었다.

- 복성화 선  ㉠ 외양 선  ㉡ 히 비록 오라나  
(복성화 선 **길**과 외양 선 **길이** 해 비록 오래되었으나) - 『두시연해』 초간본 15:15
- ㉢ 우횿 五百 빌머글 아히 다 어더 빅 차 먹더라  
(길 위의 오백 명 빌어먹을 아이가 다 얻어 배가 차도록 먹더라.) - 『월인석보』 22:53

	㉠	㉡	㉢
①	길과	기리	깊
②	깊과	기리	깊
③	길과	길히	깊
④	깊과	길히	길
⑤	길과	길히	길

[23004-0070]

## 02

〈보기〉를 바탕으로 호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에는 ‘아’와 ‘하’가 있었다. ‘하’는 화자가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의 호격 조사였고, ‘아’는 같은 신분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격 조사였다. ‘아’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두루 쓰였으나, 모음 뒤에서는 ‘야’로도 나타났다. 존칭의 호격 조사 ‘하’는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되었고, 상대를 존칭하여 부를 때는 조사 없이 접미사 ‘-님’이 체언과 결합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비존칭의 호격 조사는 근대 국어에서부터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야’가 되었다.

- ① 중세 국어의 ‘님금하’에 쓰인 ‘하’는 ‘님금’을 높이는 호격 조사구나.
- ② 중세 국어에서 ‘大王(대왕)하’에서는 ‘大王(대왕)’을 부르는 화자가 ‘대왕’보다 높은 사람이고, ‘大王(대왕)아’에서는 ‘大王(대왕)’을 부르는 화자가 ‘대왕’보다 낮은 사람이었겠구나.
- ③ 중세 국어에서 ‘得大勢(득대세)야’에서는 ‘得大勢(득대세)’가 모음으로 끝나 ‘야’라는 형태가 사용되었겠구나.
- ④ 현대 국어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 국어 시기에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소멸되었기 때문이겠구나.
- ⑤ 현대 국어에서 ‘태훈아’, ‘윤우야’로 호격 조사가 달라지는 것은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구나.

[23004-0071]

03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어 형성 방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耶輸   <u>그</u> 기별 드르시고(야수가 그 기별을 들으시고)           | - 『석보상절』 6:2    |
| ㉡ <u>내 지브 이쉴</u> 저기(내가 집에 있을 적에)                  | - 『석보상절』 6:7    |
| ㉢ <u>부텃</u> 나히 설흔들히러시니(부처의 나이가 서른들이시더니)           | - 『석보상절』 6:1    |
| ㉣ <u>아기아들</u> 의 각시를 求히더니(막내아들의 각시를 구하더니)          | - 『월인천강지곡』 상:54 |
| ㉤ 廣熾는 <u>너비 光明</u> 이 비취닷 뜨디오(광치는 널리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고) | - 『월인석보』 2:9    |

- ① ㉠을 보니, 지시 관형사 ‘그’가 ‘기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을 보니, ‘내 지브 이시-’에 관형사형 어미 ‘-쉴’이 결합하여 ‘적’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을 보니, 명사 ‘부텃’이 ‘나’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을 보니, 명사 ‘아기아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각시’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⑤ ㉤을 보니, ‘너비 光明이 비취다’에 관형격 조사 ‘시’가 결합하여 ‘뜯’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23004-0072]

## 04 &lt;보기&gt;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뽕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마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여섯 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빗근 남굴 느라 나마시니  
 石壁에 수멧던 네뵈 글 아니라도 하놓 ㉣쁘들 뉘 ㉣모르스 불리

-『용비어천가』 제86장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갑니다.

여섯 노루가 떨어지며, 다섯 까마귀가 떨어지고, 비스듬한 나무를 날아 넘으시니  
 석벽에 숨어 있던 옛 시대의 글 아니라도 하늘의 뜻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① ㉠: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 주격 조사 ‘히’가 쓰였으므로 ‘내’의 옛말은 ‘녕’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어두에 서로 다른 자음이 연이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004-0073]

## 0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으/으)시-’를 통해 실현되며,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으)샤-’로 교체된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는 대상보다 높을 때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습-’인데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습-, -습-, -습-’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耶輸 | ㉠니르샤되 如來 太子샤 時節에 나를 겨집 ㉡사므시니 내 太子를 ㉢섬기스보되  
하늘 ㉣섬기습듯 ㅎ야 ㅎ 번도 디만 ㅎ 일 업수니 妻眷 드외안 디 三年이 못 차 이셔 世間  
㉤버리시고  
-『석보상절』 6:4~5

[현대어 풀이]

야수가 이르시기를 여래가 태자의 시절에 나를 아내로 삼으시니, 내가 태자를 섬기되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 없으니 처권(아내) 된 지 3년이 못 차서 세간 버리시고

- ① ㉠의 ‘-(으)샤-’는 서술자가 ‘耶輸(야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② ㉡의 ‘-으시-’는 ‘耶輸(야수)’가 ‘如來(여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③ ㉢의 ‘-습-’은 ‘耶輸(야수)’가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④ ㉣의 ‘-습-’은 ‘耶輸(야수)’가 ‘하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⑤ ㉤의 ‘-시-’는 ‘耶輸(야수)’가 ‘妻眷(처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23004-0074]

06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중세 국어의 사동사는 동사 어근에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 형성되었습니다. 또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사동사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자료]

	주동문의 사례	사동문의 사례
㉠	식미 기픈 <u>므른</u> 마래 아니 <u>그출썩</u>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한비를 아니 <u>그치샤</u> (큰비를 그치지 않으시어)
㉡	그 술위 절로 <u>그우러</u> (그 수레가 절로 굴러)	轉輪은 술위를 <u>그우릴씨니</u> (전륜은 수레를 굴리는 것이니)
㉢	하늘토 <u>뒸며</u> (하늘도 움직이며)	하늘히 <u>므스뎨 뒸우시니</u>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
㉣	찬물 썩리여샤 <u>썩시니라</u> (찬물 뿌리어야 깨시니라)	브라미 수를 <u>썩오느니</u> (바람이 술을 깨우니)
㉤	물 <u>깊고</u> (물 깊고)	바르래 비 업거늘 <u>너토시고 썩 기피시니</u> (바다에 배가 없거늘 알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

학생:

- ① ㉠에서는 동사 어근 ‘긷-’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② ㉡에서는 동사 어근 ‘그울-’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③ ㉢에서는 동사 어근 ‘뒸-’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④ ㉣에서는 동사 어근 ‘썩-’에 사동 접미사 ‘-오-’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⑤ ㉤에서는 형용사 어근 ‘깊-’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2004-0069]

0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어간들만이 어근으로 쓰인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오르느리다>오르내리다’처럼 ㉠ 음운 규칙이나 표기의 변화만 입은 채 현대 국어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여위시들다’가 ‘여위고 시들다’와 같은 구(句)로 바뀐 것처럼 ㉡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① ㉠: ‘검붉다’는 현대 국어의 ‘검붉다’로 이어진다.
- ② ㉠: ‘뽀놀다’는 현대 국어의 ‘뽀놀다’로 이어진다.
- ③ ㉡: ‘술지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살이 찌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④ ㉡: ‘딛먹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찍어 먹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⑤ ㉡: ‘도랏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 좋거나 굶다’와 같이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22004-0070]

02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 묶이지 않은 것은?

| 보기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된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경우 ㉠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예가 흔히 나타났다. ‘꺾다’는 ‘王ᄃᆞᆫ 쑤메 집보히 것거늘 [왕의 꿈에 집 들보가 꺾이거늘]’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고ᄃᆞᆫ 곳 짓고 [고운 꽃 꺾고]’에서는 타동사로 쓰였다.

- ① ㉠ 王ᄃᆞᆫ 쑤메 집보히 것거늘 [가꿈에 꿰어지지 않으므로]  
 └ 닐웨에 닐굽 쇠줄 그치 [이레에 일곱 쇠사슬을 꿰어]
- ② ㉠ 光明이 두루 비취디시니 [광명이 두루 비치시더니]  
 └ 光明이 세계를 스뭇 비취샤 [광명이 세계를 꿰뚫어 비추셔서]
- ③ ㉠ 王이 좌시고 病이 도ᄃᆞᆫ샤 [왕이 드시고 병환이 좋아지셔서]  
 └ 네 天下스 中에 뭇 도ᄃᆞᆫ니라 [네 천하 가운데 가장 좋으니라]
- ④ ㉠ 마스미 여르샤 道를 得ᄃᆞᆫ시니 [마음이 열리시어 도를 얻으시니]  
 └ 큰 마스물 여러 空寂 버리고 [큰 마음을 열어 공적을 버리고]
- ⑤ ㉠ 魔鬼神들히 다 물러 흐터 가리이다 [마귀신들이 다 물러나 흩어져 갈 것입니다]  
 └ 번개 구르물 흐터 [번개 구름을 흩어]

[22004-0071]

03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 문장에서의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帝業을 여르시니 [제업을 여시니]
- ㉡ 흔 말도 묻혀야 잇터시니 [한 말도 못하고 있으시더니]
- ㉢ 右手 左手로 天地 마르치샤 [우수와 좌수로 천지 가리키시어]
- ㉣ 太子 | 글 비호기를 즐겨 [태자가 글 배우기를 즐겨]
- ㉤ 四海를 년글 주리여 [사해를 남을 주랴]

- ① ㉠을 보니,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실현되었군.
- ② ㉡을 보니, 보조사가 붙은 목적어가 실현될 수도 있었군.
- ③ ㉢을 보니, 목적격 조사 없이 목적어로 실현될 수도 있었군.
- ④ ㉣을 보니,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 ⑤ ㉤을 보니, 의미상으로는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하였군.

## 04

[22004-007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 [중세 국어의 특징]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형태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 객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 ‘이/의’가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되었다.
- ㉤ ‘시’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보기 2 |

- ㉠ 大王아 반드기 알라 [대왕아 반드시 알아라]
- ㉡ 大王하 이제 반드기 아랴쇼셔 [대왕이시여 이제 반드시 아소서]
- ㉢ 부텃고 이런 마를 못 듣즈븄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 ㉣ 아츰뵈 닉더니 [아침에 익더니]
- ㉤ 하늬 벼리 [하늘의 별이]

- ① ㉠의 ‘大王아’와 ㉡의 ‘大王하’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알라’와 ㉡의 ‘아랴쇼셔’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듣즈븄며’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아츰뵈’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하늬’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05~06] 다음은 중세 국어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료

**부테** 羅雲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맛나미 어려브며 法 드로미 어려브니 **네** 이제 사르미 **모들** 得ᄃ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엇테** 게을어 法을 아니 듣는다.”

羅雲이 슬보디 “부텃 **법이** 精微ᄃ야 **저믄** **아히** 어느 듣즈보리잇고, 아래 즈조 **듣즈반마를** 즉자히 도로 니저 궂블 썩니니 이제 저믄 **저그란** 안죽 므슴식장 노다가 즈라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

- 『석보상절』 권6

## [현대어 풀이]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 법을 듣는 것이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얻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나운이 사뢰되 “부처의 법이 정미하여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예전에 자주 **들었지만** 즉시 도로 잇어 힘들 뿐이니, 이제 **어릴 적은**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22004-0073]

## 05 &lt;자료&gt;의 밑줄 친 표현을 중심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모들’과 ‘法을’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군. …… ①
표기	‘엇테’의 ‘엇’과 ‘듣즈반마를’의 ‘듣’을 보니, ‘ㄷ’과 ‘ㅅ’이 종성에서 구분되어 표기되었군. …… ②
단어	‘저그란’이 ‘적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으란’이 있었군. …… ③
문장	‘듣는다’가 ‘듣는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듣는다’에는 현대 국어의 ‘-는다’와 같이 주어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 ‘-는다’가 쓰였군. …… ④
어휘	‘저믄’이 ‘어린’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저믄’은 현대 국어의 ‘젊은’과는 의미가 다르게 쓰인 것이군. …… ⑤

[22004-0074]

0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자료>에서 바르게 찾아 묶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ㅣ’, ‘∅(영형태)’로 실현되었다.

- 자음 뒤에서는 ‘이’로 나타났다. ..... ㉠
- 모음 ‘이’나 반모음 ‘j’ 이외의, 대부분의 모음 뒤에서는 ‘ㅣ’로 나타났다. .... ㉡
- 모음 ‘이’나 반모음 ‘j’ 뒤에서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

- |   | ㉠     | ㉡  | ㉢  |
|---|-------|----|----|
| ① | 法이    | 네  | 부터 |
| ② | 法이    | 부테 | 아히 |
| ③ | 羅雲이드려 | 네  | 부터 |
| ④ | 羅雲이드려 | 부테 | 아히 |
| ⑤ | 羅雲이드려 | 네  | 아히 |

[21004-0057]

## 04 <보기>의 [답안]에서 틀린 부분을 모두 옳게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 근대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과제] (가)와 (나)를 비교하여 ‘특징’과 ‘관련 구절’을 연결해 보자.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초간본과 중간본은 약 15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간행되었기 때문에 국어의 변천을 탐구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초간본에서와 달리 중간본에서 반치음이나 옛이음이 표기에 쓰이지 않은 점, 초간본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뚜렷했지만 중간본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예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초간본에서와 달리 중간본에서는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이 쓰였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가) 고·지·**눅**·**므**를~~썸~~·리계·코여·희여·슈~~믈~~**슬 후니**·새~~므~~**스**·~~믈~~·~~놀~~·래~~노~~·다

—『분류두공부시언해』 초간본 「춘망」(1481) 중에서

(나) 고지**눅**~~믈~~~~를~~~~썸~~리계코여희여슈~~믈~~**슬호니**새~~므~~**으** ~~믈~~놀래노다

—『분류두공부시언해』 중간본 「춘망」(1632) 중에서

[현대어 풀이]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떨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답안]

특징		관련 구절
ㄱ.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이 쓰임.		a. (가)의 ‘ <b>눅</b> · <b>므</b> ’이 (나)에서 ‘ <b>눅</b> · <b>믈</b> ’로 표기됨.
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음.		b. (가)의 ‘ <b>슬</b> · <b>후니</b> ’가 (나)에서 ‘ <b>슬호니</b> ’로 표기됨.
ㄷ. 반치음이 소실되어 표기에 쓰이지 않음.		c. (가)의 ‘ <b>므</b> · <b>스</b> · <b>믈</b> ’이 (나)에서 ‘ <b>므</b> · <b>으</b> · <b>믈</b> ’로 표기됨.

- ① ‘ㄱ-a’를 ‘ㄱ-c’로, ‘ㄷ-b’를 ‘ㄷ-a’로 고쳐 연결한다.
- ② ‘ㄴ-c’를 ‘ㄴ-b’로, ‘ㄷ-b’를 ‘ㄷ-a’로 고쳐 연결한다.
- ③ ‘ㄴ-c’를 ‘ㄴ-b’로, ‘ㄷ-b’를 ‘ㄷ-c’로 고쳐 연결한다.
- ④ ‘ㄱ-a’를 ‘ㄱ-b’로 고쳐 연결하고, ‘ㄷ-a’를 추가로 연결한다.
- ⑤ ‘ㄴ-a’를 ‘ㄴ-b’로 고쳐 연결하고, ‘ㄷ-a’를 추가로 연결한다.

[21004-0058]

**05** <보기>를 바탕으로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근대 국어 원문]

더 캉 우히 누은 사름이 누노  
 주인이 굴오디 동모하야 온 사름이 병이 드러 누엇다 흐거늘  
 내 무르디 무슴 병이노 하니  
 주인이 날오디 다리를 알는다 흐거늘  
 내 날오디 우리 **형등의** 의원 이시니 보고져 흐느냐  
 누은 사름이 **머리롤** 드러 보고 브절업다 흐더라

- 홍대용, 『음병연행록』

[현대어 풀이]

저 구들 위에 누은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말하되 같이 온 **사람이** 병이 들어 누웠다 하거늘  
 내가 묻되 무슨 병이냐 하니  
 주인이 이르되 **다리를** 앓는다고 하거늘  
 내가 이르되 우리 **일행 중에** 의원이 있으니 보고자 하느냐  
 누은 **사람이** 머리를 들어 보고 부질없다고 하였다

비교 구절	비교 결과
사름이 → 사람이 주인이 → 주인이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① (a)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언과 주격 조사를 구분하여 끊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b)
다리를 → 다리를 머리롤 → 머리를	근대 국어에서 ‘롤’이 현대 국어에서의 ‘를’과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c)
형등의 → 일행 중에	근대 국어에서 ‘의’가 현대 국어에서의 ‘에’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④ (d)
이시니 → 있으니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격 조사에 어미가 붙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⑤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1004-0062]

**04**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 자료]**

그제사 善容이 므스미 여러 王씨 슬보되 내 王 말씀 듣좁고사 내 므스미 씨든과이다 生老病死 |  
眞實로 슬흔 이리로소이다 나를 出家호야 道理 비호게 호쇼셔

- 『석보상절』 권 제24

**[현대어 풀이]**

그제야 선용이 마음이 열려 왕께 아뢰기를 “내가 왕 말씀을 듣고서야 내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생로병사가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나를 출가하여 도리 배우게 하십시오.”

- ① ‘王씨’와 ‘왕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객체를 높이기 위한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슬보되’와 ‘아뢰기를’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듣좁고사’와 ‘듣고서야’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리로소이다’와 ‘일입니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호쇼셔’와 ‘하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004-0063]

**05** 다음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형태	똥다	좋다
	의미	1)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2) 좋아지다, (병이) 낫다.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	형태	사오납다	사납다
	의미	좋지 않다, 질이 낮다.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역세다.
㉢	형태	어엿브다	어여쁘다
	의미	불쌍하고 가련하다.	아름답고 곱다.
㉣	형태	스랑ㅎ다	사랑하다
	의미	1) 생각하다. 2)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	형태	녀름	여름
	의미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 ① ㉠: ‘똥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남에 따라 형태는 ‘좋다’가 되었고, 의미도 축소되었어.
- ② ㉡: ‘사오납다’는 모음 ‘오’가 탈락함에 따라 형태는 ‘사납다’가 되었고, 의미도 변화했어.
- ③ ㉢: ‘어엿브다’는 자음 ‘ㅂ’이 첨가됨에 따라 형태는 ‘어여쁘다’가 되었고, 의미도 확대되었어.
- ④ ㉣: ‘스랑ㅎ다’는 ‘ㄷ(아래아)’의 소실에 따라 형태는 ‘사랑하다’가 되었고, 의미도 축소되었어.
- ⑤ ㉤: ‘녀름’은 반모음 ‘j’ 앞에서 ‘ㄴ’이 탈락함에 따라 형태는 ‘여름’이 되었고, 의미는 유지되었어.



20003-0205

01 <학습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 활동>의 ㉠~㉥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내용>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 선조들은 ㉠한자의 뜻을 빌려 적는 방법과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는 방법을 활용하여 국어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의 이름을 ‘永同’ 또는 ‘吉同’으로 표기한 것이다.

	㉠		㉡	
한자	永		吉	同
뜻	길다		좋다	같다
소리	영		길	동

<학습 활동>

다음의 ‘바꿀 말’을 ‘한자’를 활용하여 친구들과의 ‘암호’로 바꾸었을 때, 각각의 암호가 ㉠, ㉡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한 것인지를 ㉠~㉥에 순서대로 적어 보자.

바꿀 말	한자	암호	방법
둘이	二: 둘 이	二二	㉠
나가자	拿: 붙잡다 나, 行: 가다 행, 尺: 자 척	拿行尺	㉡
여기	如: 같다 여, 基: 터 기	如基	㉢
있어	有: 있다 유, 魚: 고기 어	有魚	㉣
제발	第: 차례 제, 足: 발 족	第足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⑤ ㉤: ㉡, ㉠

20003-0206

## 02 &lt;학습 내용&gt;을 참고하여 &lt;학습 활동&gt;의 (가)~(마)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lt;학습 내용&gt;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현대 국어에 비해 규칙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음 조화가 모음 간 체계적인 대립을 바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의 대립은 단모음에서는 물론 각각의 단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중 모음에서도 나타났다.

양성 모음	·	ㅓ	ㅗ
	↓	↓	↓
음성 모음	ㅡ	ㅜ	ㅣ

모음 조화가 나타나는 환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사슴'의 예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이다.

모음 조화는 단어의 형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한 단어의 모음이 모음 조화에서 대립되는 다른 모음으로 바뀌므로써 형태가 다른 새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렇게 ㉣모음 조화의 대립을 보이는 단어 쌍의 예로는 '한쪽으로 휘다'를 뜻하는 '굽다 - 굽다', '머리'를 뜻하는 '마리 - 머리' 등이 있었다.

## &lt;학습 활동&gt;

다음 중세 국어의 예를 통해 ㉠~㉣ 중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가)~(마)에 적어 보자.

중세 국어의 예	현대 국어 풀이	㉠~㉣ 중 확인할 수 있는 것
'누네', '고대'	'눈에', '곳에'	(가)
'안좁', '업슴'	'안음', '없음'	(나)
'아드릭', '구루미'	'이들의', '구름의'	(다)
'도련ㅎ다', '두련ㅎ다'	'동그랗다' 또는 '둥그렇다'	(라)
'저거', '쟈가'	'적어' 또는 '작아'	(마)

- ① (가): ㉡
- ② (나): ㉢
- ③ (다): ㉠과 ㉡
- ④ (라): ㉠과 ㉢
- ⑤ (마): ㉡과 ㉢



20003-0207

### 0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제야 善容(선용)이 막스미 여러 ㉠王(왕)의 슬보되 ㉡내 王(왕) 말씀 ㉢듣좁고사 내 막스미 ㉣씩 들과이다 生老病死(생로병사) | 眞實(진실)로 슬흔 이리로소이다 나를 出家(출가)하야 ㉤道理(도리) 비호게 하쇼셔 王(왕)이 깃저 그리 하라 하야늘

- 『석보상절』 권 24

<현대어 풀이>

그제야 선용이 마음이 열려 왕께 아뢰기를 “내가 왕 말씀 듣고서야 내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생로병사가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나를 출가하게 하여 도리 배우게 하십시오.” 왕이 기뻐 “그리 하라.” 하거늘

- ① ㉠: 높임을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있다.
- ②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
- ③ ㉢: 문장의 주어에 대한 높임이 나타나 있다.
- ④ ㉣: 대화의 청자에 대한 높임이 나타나 있다.
- ⑤ ㉤: 서술어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20003-0208

### 04 옛말 사전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동대[好] ㉢ 좋다. ㉣ 날도 도쿄 서르 종용하여(날도 좋고 서로 조용하여), 도커나 굿거나 아름다거나 아름답디 아니거나(좋거나 굿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 ㉡ : 동대[好] ㉣ 좋아지다. 병이 낫다. ㉣ 그 아드릭 病(병)이 즉재 도커늘(그 아들의 병이 즉시 좋아지거늘), 현 우희 불로되 도토록 하라((상처로 인해) 현 위에 바르되 좋아질 때까지 하라)

- ㉢ a: ㉠은 상태의 변화를, ㉡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 b: ㉠과 ㉡은 형태와 성조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품사로 분류되고 있다.
- ㉢ c: ㉠과 ㉡의 활용형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b, c

20003-0209

## 05 &lt;보기&gt;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형태가 현재의 형태가 되기까지 겪은 음운 변화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세 국어 형태	현재의 형태	변화
전혀	전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ㅈ’의 조음 위치가 변화였다.</li> <li>■ ‘ㅈ’ 뒤의 모음이 단모음이 되었다. …… ㉠</li> </ul>
ㅁ슴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ㅁ’이 탈락되었다.</li> <li>■ ‘ㅁ’가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서로 다른 소리로 변화였다. …… ㉡</li> </ul>
더븀	더위	■ ‘븀’이 반모음으로 변화였다. …… ㉢
니르다	이르다	■ 어두의 ‘ㄴ’이 ‘ㄷ’ 앞에서 탈락하였다. …… ㉣
므르다	무르다	■ ‘ㄴ’이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으로 변화였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운 변동 중 잘 알려진 것으로 모음 조화 현상이 있다. 모음 조화는 한 단어 내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모음들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모음 조화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모음들을 가리킬 때 흔히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의 언어학적 공통점이 있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의 언어학적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는 ‘으, 오, 아’가 양성 모음을 이루고, ‘으, 우, 어’가 음성 모음을 이룬다. 양성 모음들은 혀를 움츠려 발음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설축(舌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음성 모음들은 혀를 조금만 움츠려 발음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설소축(舌小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명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가령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양성 모음인 ‘으, 오,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음성 모음인 ‘으, 우,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음 조화는 어간 뒤의 어미 형태뿐만 아니라 체언 뒤의 조사 형태도 결정했으며 한 단어 안의 모음들도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중세 국어에 비해 적용되는 범위나 엄밀함이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에 관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행되면서 모음 체계가 변화한 결과, 양성 모음은 ‘오, 아’의 2개만 남았다. 반면 음성 모음은 단모음으로 바뀐 ‘애, 에, 외, 위’를 비롯하여 중성 모음 ‘이’가 새롭게 포함되어 8개가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가 불균형적으로 바뀌었다. 더 큰 문제는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의 공통점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모음 체계가 변화하면서 ‘설축’ 또는 ‘설소축’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아, 오’만이 갖는 공통점 또는 음성 모음들이 갖는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음 조화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모음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매우 많아졌다. 단어 내부에서는 중세 국어의 ‘나무, 사슴’이 현대 국어의 ‘나무, 사슴’으로 바뀐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 형태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또한 용언 어간에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아퍼, 앓어, 살어’ 등과 같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 형태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들의 공통점이 사라짐으로써 모음 조화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9003-0205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다.
- ②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는 각각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
- ③ 중세 국어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수가 대등하지만 현대 국어는 그렇지 않다.
- ④ 중세 국어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각각 공통점을 가지지만 현대 국어는 그렇지 않다.
- ⑤ 모음 조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어미의 종류는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보다 더 많다.

9003-0206

**02** ㉠을 고려할 때 어간 ‘막-’의 활용형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간+(-아/-어)	어간+(-음/-음)	어간+(-으니/-으니)
①	마가	마곰	마ㄴ니
②	마거	마곰	마그니
③	마가	마곰	마그니
④	마가	마곰	마ㄴ니
⑤	마거	마곰	마ㄴ니

9003-0207

**0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 菩薩(보살)이 王(왕) ㉠외야 ㉡겨샤 나라홀 아스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구담바라문)을 만나샤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과실(果實)와 ㉥물와 좌시고

[현대역] 한 보살이 왕 되어 계시어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도리 배우러 나가시어 구담바라문을 만나서서 당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 『월인석보』 권1

- ① ㉠: 주어 높이는 데 쓰이는 동사이다.
- ② ㉢: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보살’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가 쓰였다.
- ④ ㉤: ‘밧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9003-0208

### 04 (가)를 참고할 때, (나)의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높임의 종류는 그 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부사어나 목적어와 같은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가 존재하지만 객체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중세 국어에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은 물론 객체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야 할 경우에는 ‘-습-’, ‘-줍-, ’-습-’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나) 다음 문장들이 중세 국어에 나타난다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을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 나는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보았다.
- ㉡ 누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 ㉢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극진히 돌보셨다.
- ㉣ 나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갔다.
- ㉤ 우리는 어제 동네 어른들을 뵈었다.

- ① ㉠: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② ㉡: ‘부모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③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④ ㉣: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⑤ ㉤: ‘동네 어른들’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9003-0209

## 05 (가)를 참고할 때, (나)의 ㉠~㉣에 들어갈 형태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ㅎ’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존재했다. ‘가을, 나라, 땅, 하늘’ 등의 중세 국어 형태인 ‘ㄱ술, 나라, 짜, ㅎ늘’ 등은 모두 지금과 달리 ‘ㅎ’으로 끝나는 말들이었다. 이 단어들이 ‘ㅎ’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조사와 결합하면 알 수 있다. 가령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짜히, 짜흫, 짜해’와 같이 ‘ㅎ’이 이어 적기에 의해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낸다. ‘과, 도’와 같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짜과, 짜토’처럼 조사의 첫 자음 ‘ㄱ, ㄷ’이 ‘ㅋ, 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체언의 말음 ‘ㅎ’과 조사의 첫 음이 축약된 결과이다. 물론 이 외의 환경, 가령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와 결합할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ㅎ’으로 끝나는 체언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모두 말음 ‘ㅎ’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가을, 나라, 땅, 하늘’ 등은 뒤에 어떠한 조사가 오든지 ‘ㅎ’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체언은 ‘ㅎ’의 흔적을 복합어에 남기기도 한다. 가령 ‘살코기, 암탉, 수캐’ 등에서 ‘고기, 닭, 개’의 첫 자음 ‘ㄱ, ㄷ’이 복합어에서 ‘ㅋ, ㅌ’으로 된 것은 모두 그 앞에 오는 말들이 예전에 ‘ㅎ’으로 끝나던 체언이었기 때문이다.

(나) 중세 국어의 ‘돌(石)’은 현대 국어와 달리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었다. 이 단어가 홀로 쓰이거나 그 뒤에 조사 ‘이’, ‘과’가 결합하면 각각 ( ㉠ ), ( ㉡ ), ( ㉢ )와 같이 실현되었다.

	㉠	㉡	㉢
①	돌	돌히	돌과
②	돌	돌히	돌과
③	돌	돌히	돌과
④	돌	도리	돌과
⑤	돌	도리	돌과



8003-0203

02 (가)와 (나)를 참고하여 소리의 세기가 센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가)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 나는 것이 조금 센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ㅌ’에서 ‘ㅂ’, ‘ㅂ’에서 ‘ㅍ’, ‘ㅍ’에서 ‘ㅈ’, ‘ㅈ’에서 ‘ㅊ’, ‘ㅊ’에서 ‘ㅎ’으로 그 소리(소리가 더 세어지는 것)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뜻은 모두 동일하다.

- 『훈민정음』 제자해 -

(나) 초성 17자의 분류

	이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	ㄱ	ㄷ	ㅂ	ㅅ, ㅆ	ㅎ		
차청	ㅋ	ㅌ	ㅍ	ㅊ	ㅎ		
불청불탁	ㅇ	ㄴ	ㅁ		ㅇ	ㄹ	ㅅ

- ① 전청 > 차청 > 불청불탁
- ② 전청 > 불청불탁 > 차청
- ③ 차청 > 전청 > 불청불탁
- ④ 차청 > 불청불탁 > 전청
- ⑤ 불청불탁 > 차청 > 전청



###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글 자모 24자 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모음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자이다. 10자를 제외한 다른 모음자, 가령 ‘ㅘ, ㅙ, ㅚ, ㅜ, ㅞ, ㅟ’는 하나의 모음자가 아니고 둘 또는 세 개의 모음자가 합쳐진 것으로 처리된다.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하나의 글자로 보고 어떤 것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한글을 처음 만들 당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던 15세기의 모음자는 현재와 달리 11자였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ㆍ’가 더 있었다. 이러한 11자의 모음자는 그 성격에 따라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천지인(天地人)’을 본떠 만든 ‘ㆍ, ㅡ, ㅣ’는 기본자, 기본자들을 합쳐서 만든 ‘ㅓ, ㅑ, ㅛ, ㅕ’는 초출자, 초출자에 ‘ㆍ’를 더하여 만든 ‘ㅞ, ㅙ, ㅟ, ㅟ’는 재출자가 된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그 당시 존재하던 7개의 단모음을 온전히 나타낸다. 반면 재출자는 초출자 ‘ㅓ, ㅑ, ㅛ, ㅕ’가 가리키는 단모음 앞에 반모음 ‘j’가 더해진 이중 모음을 나타낸다. 그 당시 11자의 모음자는 하나의 글자로 보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자들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모음 체계에는 변화가 생겼다. ‘ㆍ’가 없어지고 이중 모음이던 ‘ㅘ, ㅙ, ㅚ, ㅜ, ㅞ, ㅟ’가 새롭게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ㆍ’가 사라지면서 이 모음을 나타내던 글자도 함께 없어졌다. 즉 모음의 변화가 모음자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ㅘ, ㅙ, ㅚ, ㅜ, ㅞ, ㅟ’는 단모음으로 바뀌었지만 이 모음들을 나타내는 글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이 글자들은 하나의 모음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여전히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처리되어 모음자 10자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ㅘ, ㅙ, ㅚ, ㅜ, ㅞ, ㅟ’가 이중 모음이었고 각각 ‘ㅏ + ㅣ, ㅓ + ㅣ, ㅗ + ㅣ, ㅛ + ㅣ’와 같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처리된 데에서 유래한다.

8003-0204

### 0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는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
- ② 중세 국어의 단모음 중 후대에 사라진 것이 있다.
- ③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하나의 모음자로 나타낸다.
- ④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중 후대에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 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두 글자로 된 모음자 중 하나의 글자로 바뀐 것이 있다.



8003-0205

04 **옛글을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ㅈ’은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이다.
- ② 중세 국어의 ‘ㄱ’은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 ③ 현대 국어의 ‘ㄴ’은 단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 ④ 중세 국어의 ‘ㆍ’은 단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이다.
- ⑤ 현대 국어의 ‘ㄷ’은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8003-0206

05 **<보기>의 ㄱ~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옛말의 흔적을 보여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부터 와라.’에 쓰인 보조사 ‘부터’는 옛말에 쓰였던 동사 ‘블다’의 활용형 ‘부터(블- + -어)’가 변해서 된 말이에요. 아래의 예들도 옛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각각의 예와 유사한 또 다른 예들을 더 찾아보세요.

옛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	또 다른 예
‘달갈’은 ‘닭이 낳은 알’이라는 뜻으로 ‘닭 + -이 + 알ㅎ’에서 온 말인데, 옛말에 관형격 조사 ‘이’가 쓰였음.	ㄱ
‘암탸’는 ‘닭의 암컷’이라는 뜻으로 ‘암ㅎ + 닭’에서 온 말인데, 옛말에 생물의 한쪽 성을 뜻하는 ‘암’은 ‘ㅎ’ 소리가 덧붙었음.	ㄴ
‘만잡다’는 “만다”의 높임말이라는 뜻으로 ‘만- + -잡- + -다’에서 온 말인데, 옛말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쓰였음.	ㄷ
‘좁쌀’은 ‘조의 열매를 찢은 쌀’이라는 뜻으로 ‘조ㅎ + 쌀’에서 온 말인데, 현재 ‘쌀’의 형태가 옛말에서는 ‘쌀’이었음.	ㄹ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갖게’라는 뜻으로 ‘좃다’의 어근 ‘좃-’에 ‘-오’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인데, 옛말의 부사 파생 접미사에는 ‘-오’가 있었음.	ㅁ

- ① ㄱ: ‘소의 고기’를 뜻하는 ‘쇠고기’는 ‘쇠고기(← 쇼 + -이 + 고기)’에서 온 말로서 옛말에 관형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 ② ㄴ: ‘개의 암컷’을 뜻하는 ‘암캐’는 ‘암ㅎ + 개(← 암ㅎ + 가히)’에서 온 말로서 옛말에 ‘암’은 ‘ㅎ’ 소리가 덧붙었음을 알 수 있음.
- ③ ㄷ: ‘마주 잡다’를 뜻하는 ‘맞잡다’는 ‘맞잡다(← 맞- + -잡- + -다)’에서 온 말로서 옛말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 ④ ㄹ: ‘당해에 새로 난 쌀’을 뜻하는 ‘햅쌀’은 ‘히 + 쌀’에서 온 말로서 옛말에 ‘쌀’의 형태가 ‘쌀’이었음을 알 수 있음.
- ⑤ ㅁ: ‘서로 똑바로 향하여’를 뜻하는 ‘마주’는 ‘마조(← 맞- + -오)’에서 온 말로서 옛말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음.